

#### 4) 조선시대

조선시대로 오면서 이 지역은 전남동부권의 중심지로서 대응의 면모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각종 관아, 향교, 누정, 서원과 제각(祭閣) 등의 조영이 활발했으며 일부 지배층의 상류주택들도 서민들의 살림집과 함께 많이 건립되었다. 관청이나 상류주택 등은 한양의 관아 건축을 모본으로 건립되어 지역에 따른 형태상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서민들의 살림집은 지역의 주(住)문화적 지역성이 농후하게 구현되므로 지역 고유의 전형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지역별 민가들이 대체적인 유형으로 완성되는 시기는 조선시대로 오면서부터라고 생각된다. 조선시대는 유교적 정치이념에 따라서 확립된 신분사회였다. 이러한 바탕에서 왕실과 양반은 물론이고 중인과 서민의 가옥까지 제한을 두어 사가(私家)의 가대(家垔), 가사 규모 및 부재나 장식까지 상한을 정하여 규제했다. 세종 때만 하더라도 서인의 가사는 2부 대지에 10칸, 주고(柱高) 7척을 넘지 못하는 등 주거규모의 영세성은 법률적으로도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전까지의 이러한 민가의 형태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유구는 전혀 남아 있지 않다. 목조 가구식 구조는 화재에 약할뿐더러 빈번한 외적의 침입으로 조선 전기로 소급되는 것은 찾을 수 없다. 특히 순천지역을 비롯한 남부지역은 예로부터 계속된 왜구의 노략질을 받아왔으며, 여기에 국정의 문란과 지배층의 가렴주구에 시달렸다. 따라서 민가나 취락조차 가장 영세하고 소극적이며 방어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임진왜란 이후 사회 전반의 모든 질서가 재편되면서 신분제도도 난맥상을 보이고, 이에 따라 비양반층이 양반층으로 오르려는 상향적 계층이동의 지향성이 강하였다. 이는 가옥에서도 그대로 옮겨져 종래의 가사 제한이 크게 무너지고, 재력 있는 사람은 규모를 확대하거나 상류주택에 사용되는 영조법식을 적용하는 등 신분적 권위를 주택건축을 통해 표현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여건하에서 이 지역의 민가는 우리가 흔히 남부형으로 분류하는 민가 유형을 기본으로 주문화를 형성해왔다. 일부 계층의 상류주택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가들은 안채를 부엌·큰방·작은방 순의 평면인 초가삼간, 막살이 홑집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1칸을 옆에 덧붙인 4칸 구조로서 작은방을 안청으로 만들거나 간혹 부엌 뒤로 방을 들이는 곁집 구조도 있었다. 부속사는 별채로 두어 상류주택의 사랑채를 본뜨기도 하고, 축사나 도장·측간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남해연안의 고온다습한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가장 적절한 장치였다고 하겠다.

다만 이러한 민가들도 1910년 한일합병으로 인하여 문화의 전과양상이 달라지면서 그 원형이 변질되기 시작했다. 더구나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온존하게 원형을 보존해온 많은 민가들이 소실, 훼손되었다. 특히 근래의 새마을운동으로 시멘트 벽돌이나 블록, 슬레이트 등으로 개조되기도 하여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민가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